

일본 판화작가 도미야마 다에코 별세

판화로 세계에 ‘5월’ 알린 양심적 예술가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깊은 슬픔과 만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세계 민중 판화’ 전시장 벽에 적힌 작가의 육성은 강렬한 판화 작품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다. 희생자 앞에서 열리는 여성의 슬픔이 생생하게 담긴 ‘광주의 피에타’는 단순한 터지와 붉고 검은 강렬한 색감으로 광주의 비극을 절실히 표현하며 마음을 울렸다.



도미야마 다에코

광주의 오월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일본의 판화작가 도미야마 다에코가 100세의 일기로 18일 별세했다.

1921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중국 만주 지방에서 보낸 도미야마는 평생을 전

세계 억압받는 민중들의 삶을 포착하는 작품에 전착해왔다. 또 일본의 전쟁 책임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예술로 표현한 양심적 작가로 특히 광주 5·18을 비롯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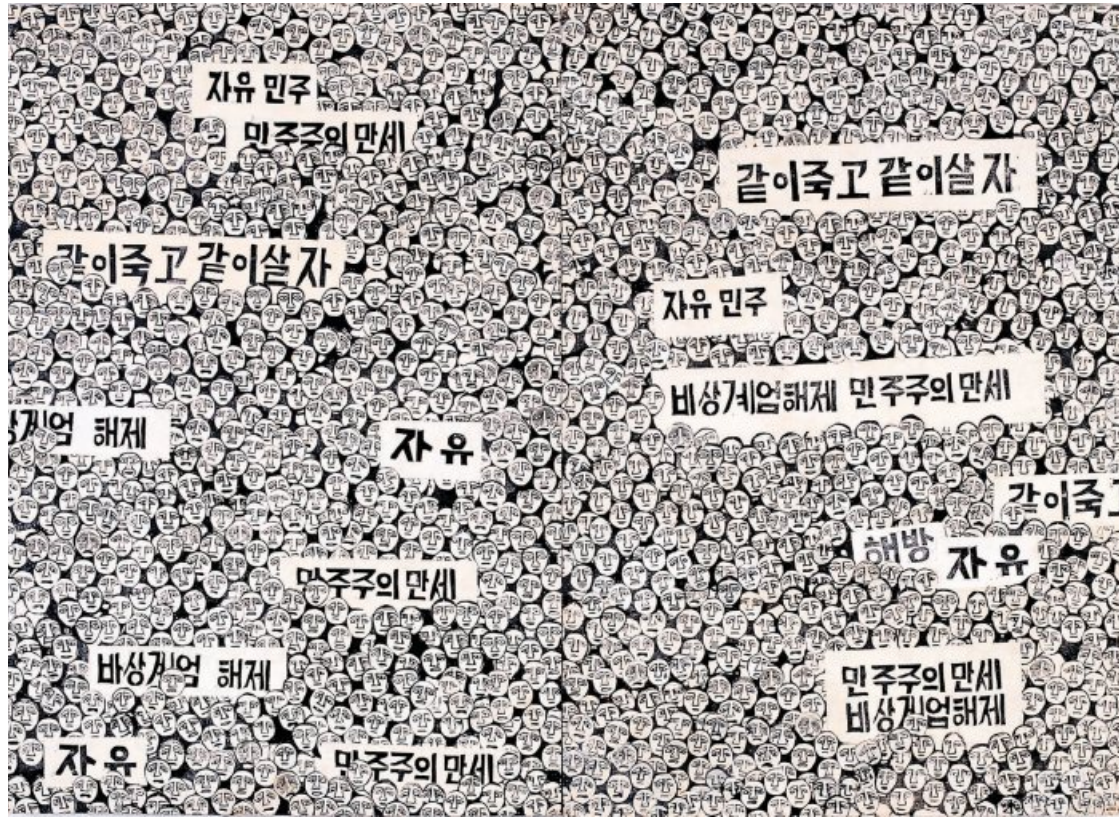
도미야마의 대표작인 연작 판화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 1980년 5월 ‘광주’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TV로 접하고 전 세계에 이를 알리기 위해 6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작업했던 작품들이다. 연작은 1995년 광주비엔날레 국제전시회 특별초대로 광주시민에게 처음 공개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그의 작품은 영상과 달력으로 제작됐고, 전시회 등을 통해 5·18의 비극과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손을 하늘로 뻗어 환희를 표현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 광주의 해방을 표현한 ‘자유 광주’와 ‘비상계엄 민주주의의 만세’ ‘자유 민주’ 등의 플래카드와 다채로운 표정의 수천개의 얼굴을 함께 등장시킨 ‘시민의 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광주의 레퀴엠’ 등은 오월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컬렉션을 통해 5월 연작 작품 46점을 소장하고 있다.

도미야마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제일동포 유학생간접단 사건’에 연루됐던 서승교수의 면회를 위해 197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한국 양심수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섰다. 김지하 시인의 시를 테마로 한 판화 작품집 ‘뉘인 손의



‘시민의 힘’



‘광주의 레퀴엠’

기도’를 제작했고 이후 15년간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혼의 의미를 담아 ‘바다의 기억’ 작업을 했고 일본이 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을 평생 부끄럽게 생각하며 일생 동안 전쟁에 대한 일본의 참회와 반성을 촉구하는 그림을 그렸다.

인권·평화 연대 촉구한 예술가

‘광주 피에타’ ‘광주의 레퀴엠’ 등 제작

오월 단체 “광주의 등불” 추모

광주시립미술관 연작 40여점 소장

한국민주화운동 기여 국민포장도

말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문제 등 일본의 사회문제에 발언하는 작업을 해온 도미야마는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한 마나베 유코 도쿄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내 그림이 당도한 주제는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 열사나 말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한을 그리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 5·18재단 등 광주의 오월 관련 단체들은 19일 추모 성명을 내고 “1980년 오월 광주를 섬세한 예술가의 시각으로 조명했던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의 분투는 당시 고립된 광주에 외부로부터 힘과 희망을 준 등불과 같았다”며 “고인 스스로 보여준 삶의 궤적 또한, 현재 5·18민주화운동이 꺾박받는 민중의 편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연세대 박물관에서는 유화, 판화, 콜라주, 스케치, 영상 등 약 170점을 선보이는 기획전 ‘기억의 바다로:도미야마 다에코의 세계’전이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꽃, 빛’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윤미지 작가는 ‘화장실 휴지’를 이용해 작업한다. 화장지는 꽃이 돼 천정에 매달리고, 집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작가는 휴지 꽃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비디오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인 윤미지 작가가 20일부터 2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에서 결과물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창작소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까지 회화, 사진, 영화, 공예 등 모두 7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꽃,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글라스폴리곤의 공간을 작품에 적극 활용했다. 유리창으로 이뤄진 전시장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커다란 나무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전시공간에 들어오는 햇빛의 느낌도 전시의 일부로 재해석해 광주의 기억과 현재의 빛을 반영했다. 유리로 둘러싸여 햇빛이 투과되고

휴지꽃

윤미지 전, 20~26일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모습에서 착안, 커다란 버드나무의 이미지로 휴지꽃을 공중에서 늘어뜨렸다.

북한에서 홀로 남아와 한국전쟁을 겪은 외할머니에게서 ‘화장실 휴지는 세간 이상을 쓰지 말라던 당부’를 들었던 윤 작가는 프랑스 유학시절 그런 외할머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화장실 휴지로 작업을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휴지 사재기 현상은 작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줬 작품 세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 애니메이션과 만화창작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 소르본-판테옹에서 순수예술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윤 작가는 지난 2019년에는 쓰나미 해일 피해로 버려져 있던 일본 센다이 개인주택에서 생활하며 진행했던 설치작업물 ‘경험자 소금’으로 첫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윤 작가는 전시 오픈과 함께 20일 문예학교를 열고 관람객들과 함께 작품 ‘휴지 꽃’을 함께 만드는 시간도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영화비평지 ‘썬 1980’ 6호 발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발행하는 광주영화비평지 ‘썬 1980’ 6호가 발간됐다. 현재집 편집장의 ‘연대 없는 독립은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로 문을 여는 6호는 현 문화계의 예술인 지원제도에 대해 비판한다.

또 지난 5월 열린 전주영상위원회의 ‘전주 컨퍼런스’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변화된 영화·영상산업 분야의 현 상황을 분석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의 인터뷰도 실렸다.

작품비평은 흥성은 감독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주영광),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더 파더’ (윤여리)가, 도큐멘타에는 일제강점기 영화에 대한 최남주의 역할과 그것을 뒷받침한 내용들을 정리한 ‘일제강점기 문화엘리트 최남주의 ‘상상적 근대’와 영화 (上)’ (위경혜)가 실렸다.

이밖에 김지연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과 배우 임성재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으며, 광주·전남의 대안영화공간들, 광주의 영화공부모임 등도 소개한다.

한편 ‘썬1980’은 계간지 형태로 연 4회 간한다. 현재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 독립서점 소년의 서, 책과생활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

